

미사 거행에 관한 교구 지침 시안

천주교 광주대교구
ARCHDIOCESE OF GWANGJU

차 례

미사 거행에 관한 교구 지침	05
I. 일반 지침	07
II. 미사의 각 부분에 대한 지침	12
III. 공동 집전 지침	28
IV. 기타 유의 사항	33
[부록 1] 새 「로마 미사 경본」에 대한 간략한 소개	36
[부록 2]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판 발행 연표와 주요 변경 사항	41
[부록 3] 위령 미사의 허용, 금지	44
[부록 4]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	46

〈서문〉

광주대교구 전례위원회는 교구의 모든 전례가 올바르게 경건하게 봉헌되기를 바라면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미사 거행에 관한 교구 지침 시안」을 발표합니다. 이는 존경하는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의 추인에 앞서 수정 및 보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신자들의 성화를 위한 교회의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전례헌장 7항)가 표현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 6. 14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전례위원회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

(전례헌장 26항)

I. 일반 지침

1. 낭송 발음과 속도

독서, 기도, 권고, 환호, 노래는 사제나 부제 또는 독서자가 모두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그 본문의 유형은 물론 거행의 형식과 집회의 장엄성에도 어울리게 목소리를 맞추어야 한다.¹⁾

2. 노래의 중요성²⁾

미사 거행에서, 교우들의 특성과 전례 회중의 능력을 고려하면서 노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평일 미사에서는 그 성격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전례문을 반드시 모두 노래하지 않더라도,³⁾ 주일과 의무 축일에 지내는 미사에서는 봉사자들과 교우들의 노래가 빠지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래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로마 전례에 고유한 그레고리오 성가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 전례 거행의 정신에 맞고 모든 신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면 다른 종류의 성음악, 특히 다성 음악도 전혀 배제되지 않는다.⁴⁾

3. 동작과 자세⁵⁾

1) 교우들의 동작과 자세와 마찬가지로 사제, 부제, 봉사자들의 동작과 자세도 거행 전체가 아름다움과 고귀한 단순성으로 빛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작과 자세는 거행의 여러 부분들이 지닌 참되고 완전한 뜻을 밝혀 주고, 모든 이가 거행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과 로마 예법의 전통 관습이 정하는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개인 취향을 따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느님 백성의 영적인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사제, 부제, 봉사자들의 이동과 행렬은 빠르지 않고 경건해야 한다.

1) 「총지침」, 38항.

2) 「총지침」, 39-41항 참조.

3) 평일 미사에도 “복음 전 환호송”과 “거룩하시도다”와 같은 환호 부분은 되도록 노래로 부르기를 권장한다. 「총지침」, 62, 79, 131, 148항 참조.

4) 날이 갈수록 여러 나라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적어도 「미사 통상문」의 몇 부분, 특히 신경과 주님의 기도는 신자들이 쉬운 곡조의 라틴 말 노래로 함께 부를 줄 알면 매우 좋다(「총지침」, 41항).

5) 「총지침」, 42-44항 참조.

- 2)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통일된 자세는 거룩한 전례에 모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이 이루는 일치의 표지다. 이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표현해 주고 길러 준다.

4. 침묵⁶⁾

거룩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한다(전례 현장 30항). 침묵은 각각의 거행에서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참회 행위와 기도의 초대 다음에 하는 침묵은 저마다 자기 내면을 성찰하도록 도와주고,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동안의 짧은 침묵은 들은 것을 잠깐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로 응답할 준비를 하게 한다. 예를 들어, 말씀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첫째 독서와 둘째 독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론을 들은 다음에 알맞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성체로 오신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잠기게 하고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 준다. 그리고 거룩한 예식을 경건하고 합당하게 거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전례 거행에 앞서 성당이나 제기실, 제의실이나 그 주위에서 미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복장

- 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성찬례 거행 안에서 임무의 다양성은 거룩한 옷의 차이에서 외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거룩한 옷은 각 봉사자의 고유 임무를 드러내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옷은 거룩한 행위 자체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도 이바지해야 한다.⁷⁾
- 2) 미사나 미사와 직접 연결된 다른 거룩한 예식 때 주례 사제가 입어야 할 고유한 옷은 제의이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의는 장백의와 영대 위에 입는다.⁸⁾

6) 「총지침」, 45. 56항 참조.

7) 「총지침」, 335항 참조.

8) 「총지침」, 337항.

- 3) 미사 중 시중, 독서자, 해설자, 기타 평신도 봉사자들은 장백의 혹은 단정한 복장을 입는다.⁹⁾

6. 준비사항

1) 제대

- (1) 모든 성당에는 제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대는 살아 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1베드 2,4; 에페 2,20 참조) 더욱더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룩한 거행을 위하여 봉헌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이동 제대를 쓸 수 있다.¹⁰⁾ 제대의 윗부분은 돌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며,¹¹⁾ 편리함을 이유로 전례를 위한 도구를 보관하는 목적이더라도 제대에 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성찬례는 거룩한 장소에 있는 제대 위에서 거행해야 한다. 거룩한 장소 밖에서는 알맞은 상을 차리고 거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제대포와 성체포를 깔고 십자가와 촛대를 놓아야 한다.¹²⁾
- (2) 제대는 고정 제대이거나 이동 제대이거나 《로마 주교 예식서》의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봉헌된다. 그러나 이동 제대는 간단하게 축복만 할 수도 있다.¹³⁾
- (3) 제대는 신자들의 회중 전체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참으로 성당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야 한다.¹⁴⁾

9) 「총지침」, 339항 참조.

10) 「총지침」, 298항. 고정 제대는 바닥에 고정시켜 움직일 수 없는 제대를 말한다. 이동 제대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11) 「총지침」, 301항. 교회는 전통 관습과 상징에 따라 고정 제대의 윗부분은 돌로, 곧 자연석으로 만든다. 그러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품위 있고 튼튼하며 정성 들어 마련한 다른 재료로도 만들 수 있다. 윗부분을 받쳐 주는 다리와 밑 부분은 품위 있고 튼튼하면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좋다. 이동 제대는 고상하고 튼튼하며 해당 지역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전례 용도에 알맞으면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좋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고정 제대의 윗부분을 고상하고 튼튼한 나무를 잘 다듬어 만들 수 있다(「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2002.6.25.; 교회법 제236조 1항 참조)

12) 「총지침」, 297항. 제반 신심 단체의 행사 때 제대에 부착물을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

13) 「총지침」, 300항 참조.

14) 「총지침」, 299항.

- (4) 제대 위에는 오직 미사 거행에 필요한 것만 둘 수 있다. 곧 거행 시작부터 복음 선포 전까지 『복음집』을, 예물 준비부터 그릇을 씻을 때까지 성반과 성작 그리고 필요하면 성합을 두며, 성체포, 성작 수건, 성작 덮개와 미사 경본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사제의 목소리를 키우는 도구가 필요하다면 신중히 놓아야 한다.¹⁵⁾
- (5) 전례서들은 전례 행위에서 실제로 천상 실재를 드러내는 표지와 상징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참된 품위와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 특히 『복음집』과 『미사 독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이므로 특별한 공경을 받는다.¹⁶⁾
- (6) 촛불은 공경과 축제의 표지이기 때문에 모든 전례 행위에 필요하다(307항). 촛불은 모든 거행에서 적어도 두 개, 특히 주일이나 의무 축일 미사에서는 네 개나 여섯 개, 또는 교구장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에서는 일곱 개의 촛대에 촛불을 켜 놓는다.¹⁷⁾
- (7) 촛대는 제대와 제단의 구조를 고려하여 제대 위나 가까이에 놓아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신자들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나 제대 위에 놓인 것들을 쉽게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¹⁸⁾
- (8) 제대 위나 가까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를 놓아 두어, 모인 교우들이 잘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십자가는 신자들의 마음에 주님 수난의 구원 업적을 되새겨 준다. 십자가는 전례를 거행하지 않을 때에도 제대 가까이에 둔다. 제대 십자가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 제단에 이미 십자가가 있거나 행렬 십자가를 제대 가까이 세워 둘 경우에는 그 십자가로 대신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대 뒷벽에 십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제

15) 『총지침』, 306항.

16) 『총지침』, 349항.

17) 『총지침』, 117항;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59-60항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관습적으로, 기념일이나 평일(대림 시기, 사순 시기 제외) 미사에서는 두 개, 주일이나 축일 미사에서는 네 개, 대축일 미사에서는 여섯 개의 촛불을 촛대에 켜 놓고, 교구장 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에서는 다른 촛불 옆에 주교를 상징하는 초 한 개를 -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른 촛들에 비해 크기나 촛대를 다르게 하여 - 켜 놓는다.

18) 『총지침』, 307항.

19) 『총지침』, 308항 참조. 행렬 때 들고 온,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십자가는 제대 옆에 세워 두고 제대 십자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으면 품위 있는 다른 곳에 놓아둔다(『주교 예절서』, 129항, 873항 참조).

대에 십자가를 놓을 필요가 없고, 행렬용 십자가도 역시 행렬이 끝나면 제단 밖 적당한 장소에 놓아둔다. 제대 뒷벽에 십자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대에 십자가를 놓거나 행렬용 십자가를 제대 옆에 세워 둔다.

- (9) 제대 꽃 장식은 제대보다 높거나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야 하며, 전례 시기의 분위기에 어울려야 한다.²⁰⁾

2) 주례석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중 신경 및 보편 지향 기도의 인도와 마침, 마침 예식은 제대가 아니라 주례석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주례석에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여 경본대와 음향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²¹⁾

3) 그 외에 준비해 둘 것 ²²⁾

- (1) 주례석 곁에 : 경본대 위에 『로마 미사 경본』과 성가집
(2) 독서대에 : 『미사 독서』
(3) 주수상에 : 성작, 성체포, 성작 수건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성작 덮개, 성반, 필요하면 성합, 주례 사제와 부제와 봉사자들과 신자들의 영성체에 필요한 제병, 포도주와 물이 든 주수병, 이 모든 것은 신자들이 예물 행렬 때 제대로 들고 나가지 않으면 미리 주수상에 준비해 놓는다. 또 성수 예식이 있을 때에는 축복할 물이 담겨 있는 그릇, 신자들의 영성체를 위한 성반, 손을 씻는 데 필요한 것들. 성작은 그날의 색이나 흰색의 보로 덮어 놓는 것이 좋다.

20) 「총지침」, 305항 참조 ; 대림 시기에는 주님 성탄 축제의 충만한 기쁨이 너무 일찍 드러나지 않게 절제하며, 사순 시기에는 제대에 꽃 장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즐거워하여라 주일(사순 제4주일), 대축일, 축일에는 예외다.

21) 〈로마 예식서〉, 『축복 예식』, 새 주교좌나 주례석 축복 예식. 880-899항 참조.

22) 「총지침」, 118항.

II. 미사의 각 부분에 대한 지침

가. 시작 예식

1. 입당 노래

- 1)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가 부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들어올 때 입당 노래를 시작한다. 이 노래는 미사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들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키는 목적을 지닌다.²³⁾

2. 제대 인사

제단 앞에 이르러 사제, 부제,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상징인 제대에 깊은 절을 한다. 이어서 공경의 표시로 제대에 서서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한다.²⁴⁾

3. 분향²⁵⁾

- 1) 향을 사용할 경우에 사제는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향로에 향을 넣고 아무 말 없이 십자 표시로 축복한다.
- 2) 분향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는 공경과 기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시편 141,2; 묵시 8,3 참조), 입당 행렬 때, 미사 시작에서 십자가와 제대에, 복음 행렬과 선포 때, 제대 위에 빵과 성작을 준비한 다음, 예물, 십자가, 제대, 사제, 교우들에게, 축성 다음에 성체와 성작을 받들어 보일 때 할 수 있다.

23) 「총지침」, 47항.

24) 「총지침」, 49. 274-275항 : 「미사 통상문」 1. 14. 18. 26. 94항 참조 : 절은 고개를 숙이는 절과 허리를 굽히는 절 두 가지가 있다.

가) 고개를 숙이는 절 : 하느님의 세 위격을 한꺼번에 부를 때, 그리고 예수님이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성인을 공경하여 거행하는 미사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한다.

나) 허리를 굽히는 절(깊은 절) : 제대에서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와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을 할 때, 신경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부분에서, 감사 기도 제양식(로마 전문)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에서 한다. 마찬가지로 부제가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 축복을 청할 때도 깊은 절을 한다. 그 밖에도 사제는 축성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할 때 허리를 조금 굽힌다

25) 「총지침」, 276-277항 참조.

- 3) 분향을 받는 사람이나 대상에게는 분향 전후에 깊은 절을 한다. 그러나 제대와 미사의 희생 제사를 위하여 준비된 예물에는 하지 않는다.
- 4)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공적으로 공경하도록 전시된 거룩한 십자가 유물과 주님의 성화상, 미사성제를 위한 예물, 제대 십자가, 『복음집』, 파스카 초(부활초), 사제와 교우들에게는 향로를 ‘두어 번씩 흔들어 세 번’ 분향한다. 공적인 공경을 드리도록 전시된 성인들의 유해와 성화상에는 향로를 ‘두어 번씩 흔들어 두 번’ 분향한다. 미사 거행에서는, 시작할 때에 제대 분향 다음에만 분향한다. 제대에 분향할 때에는 향로를 한 번씩 흔들며, 제대를 한 바퀴 돌면서 분향한다. 사제는 십자가와 제대에 분향하기 전에 예물에 향로를 ‘두어 번씩 흔들어 세 번’ 분향하거나 예물 위에 향로로 십자 표시를 한다.²⁶⁾
- 5) 성찬 전례 때에는 부제나 봉사자는 제대 옆에 서서 사제에게 분향하고, 이어서 교우들에게도 분향한다.
- 6) 사제의 분향이 끝나가면 신자들은 성가의 다음 절을 이어 부르지 않으며 적절하게 반주로 마무리 한다.

4. 성수 예식²⁷⁾

주일, 특히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통상적인 참회 예식 대신에²⁸⁾, 경우에 따라 세례를 기념하는 성수 예식(물을 축복하여 뿌리는 예식)을 할 수 있다. 성수 예식이 끝나면, 정해진 때에는 곧바로 대영광송을 노래하거나 본기도를 바친다.

5. 대영광송²⁹⁾

대영광송은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된 고귀한 찬미가다. 이 찬미가의 본문은 달리 바꿀 수 없다.

26) ‘향로를 흔들어’로 번역되어 있는 라틴어 ‘ductus’는 ‘앞으로 한 번 치는 것’을 뜻한다. 그냥 ‘두 번 혹은 세 번 분향한다.’고 하면, 복사들은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27) 『총지침』, 51항: 성수 예식은 성당과 각 가정에서 사용될 물을 축복하는 예식인 만큼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전통에 따라 주일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유익할 것이다

28) 성무일도 시편 기도, 장엄행렬, 초축복의 예식도 미사 중 참회 예식을 대신한다.

29) 『총지침』, 53항.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다음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교우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하거나 또는 성가대만 노래한다. 노래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한다.

대림과 사순 시기 밖의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대영광송은 찬미의 노래이기 때문에 주례 사제를 포함하여 모두 일어서서 바친다.

6. 본기도

- 1) 사제는 교우들에게 기도하자고 권고한다. 그리고 모두 사제와 함께 잠깐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간청하는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사제는 흔히 ‘모임 기도’라고 하는 본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로 그 미사의 성격이 표현된다.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이 기도는 주로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바친다.³⁰⁾
- 2) 미사에는 언제나 하나의 본기도만을 바친다.
- 3) 독서자는 본기도가 끝난 후 독서대로 이동한다.

나. 말씀 전례

7. 독서대³¹⁾

- 1) 독서대는 말씀의 식탁으로서 성당 안에서 제대와 함께 전례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30) 『총지침』, 54항.

31) 『총지침』, 309항 참조.

- 2) 하느님 말씀은 그 존엄성에 비추어 성당 안에 있는 알맞은 곳에서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소는 말씀 전례 동안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독서대를 놓아야 하며 단순한 이동식 간이 독서대는 놓지 않는다. 독서대는 성당의 구조에 따라 설치하되 신자들이 성품을 받은 봉사자들과 독서자들을 잘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 3) 독서대에서는 독서들과 화답송, 파스카 찬송을 선포하고, 강론과 보편 지향 기도도 할 수 있다.
- 4) 제1독서를 포함해 하느님의 말씀은 누가 봉독하든지 반드시 독서대에서 해야 하며 제단 아래에 마련되어 있는 해설대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³²⁾
- 5) 독서대에는 그 존엄성에 비추어 오직 말씀의 봉사자만 올라갈 수 있다.
- 6) 새 독서대는 전례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로마 예식서>의 『축복 예식』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축복한다.

8. 『미사 독서』와 『복음집』³³⁾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사용되는 『미사 독서』와 『복음집』은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 따라서 『미사 독서』와 『복음집』 외에 다른 유인물이나 보조 자료 등을 전례 독서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독서 규정³⁴⁾

- 1) 독서자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잘 준비하여, 마음을 다해 봉독해야 한다. 회중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중이 성경을 함께 소리 내어 읽거나 보는 것은 옳지 않다.

32) 『총지침』, 58항.

33) 『미사 독서 목록 지침』, 35, 37항.

34) 『총지침』, 57항; 『미사 독서 목록 지침』, 12항 참조.

- 2) 미사 거행에서 성경 독서를 생략하거나 줄이거나 성경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 3) 사제는 말씀 전례를 거행하면서, 교우들이 묵상을 잘하도록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며, 결코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독서자는 말씀을 봉독하러 독서대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 서두르지 않으며, 말씀을 봉독할 때에도 다른 교우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큰 소리로 차분하게 선포한다.

10. 화답송

- 1) 제1독서 후에는 잠시 침묵 중에 묵상을 하고 이어서 화답송을 바친다. 화답송은 말씀 전례에서 빼놓을 수 없으며,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도와주는 부분으로서 전례적으로나 사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³⁵⁾ 따라서 사목자는 교우들이 전례에서 노래하는 시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해당 시편이 선택된 이유와 그 시편이 어떻게 독서의 내용과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간단히 풀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³⁶⁾
- 2) 화답송 선창자는 독서대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시편을 노래하며, 교우들은 앉아서 듣는다. 중간 후렴 없이 시편 구절만을 노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우들은 후렴을 노래하며 이 화답송에 참여한다.
- 3) 화답송은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다. 화답송을 위하여 성가대를 활용하며, 따로 시편 선창자를 두어 노래하게 할 수도 있다. 본당 사정상 성가대도 없고 따로 시편 선창자도 두기 어려울 경우 독서자(1독서)나 해설자가 후렴 선창 및 시편 구절을 담당한다.³⁷⁾ 시편을 노래로 할 수 없으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돕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낭송한다. 적어도 회중 전체가 따라 하는 후렴은 노래로 하는 것이 좋다.³⁸⁾

35) 「총지침」, 61항.

36) 「미사 독서 목록 지침」, 19항.

37) 「미사 독서 목록 지침」, 20항: 성가대나 선창자가 시편을 노래할 경우 가사 전달에 유의해야 한다.

38) 「총지침」, 61항.

- 4) 화답송을 시작할 때 선창자는 “화답송”하고 알릴 필요가 없다. 영성체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11. 복음 환호송 39)

복음 바로 앞의 독서가 끝나면 모두 서서 전례 시기에 따라 예식 규정대로 복음 환호송, 곧 ‘알렐루야’나 복음 전 노래(사순 시기 시작부터 파스카 성야 전까지)를 부른다. 이러한 환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식 또는 전례 행위가 된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신자들은 복음에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복음 환호송은 모두 일어서서 하고 성가대 또는 선창자가 인도하며 필요에 따라 반복할 수 있다. 따라오는 구절은 성가대나 선창자가 노래하거나 낭독한다.

- 1) 알렐루야는 사순 시기 시작부터 파스카 성야 전까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 노래한다. 이때 따라오는 구절은 『미사 독서』나 미사 성가집에서 가져온다.
- 2) 알렐루야를 노래하지 않는 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에 『미사 독서』에 제시된 복음 전 노래를 한다. 또는 미사 성가집에 있는 다른 시편이나 연송을 노래할 수 있다.

12. 복음 준비 40)

- 1) 복음 선포는 말씀 전례의 정점이다. 전례 자체가 다른 독서보다 복음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게 한다. 그래서 부제나 사제가 선포하며, 선포할 때에는 축복을 받거나 기도를 바쳐 준비한다. 회중은 복음을 들을 때에 모두 일어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을 향해 선다.

39) 『총지침』, 62항.

40) 『총지침』, 212 항.

- 2) 주교가 주례하는 미사에서는 부제가 신부가 주교에게 축복을 청하고 복음을 선포한다. 신부가 주례하는 미사에서 부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는 먼저 신부에게 축복을 청한 다음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신부들만 공동 집전할 때에는 공동 집전 신부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주례자에게 축복을 청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 3) 복음 선포 전 사제는 제대에서 허리를 굽히고 속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⁴¹⁾

13. 복음 선포⁴²⁾

- 1)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독서들은 언제나 독서대에서 선포한다. 사제는 제대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회중에게 인사할 때에는 다른 때와 달리 손을 모은다.
- 2) 복음 선포 후 책에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하면서 속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말한다.
- 3) 부제가 주교에게 시중을 들 때는, 『복음집』을 주교에게 가져와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하게 하거나 부제가 책에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하면서 속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를 바친다.⁴³⁾ 성대한 거행에서 주교는 경우에 따라 교우들에게 『복음집』으로 강복한다.⁴⁴⁾

41) 「미사통상문」, 14항.

42) 「총지침」, 175항: 「미사 통상문」, 14항; 「미사 독서 목록 지침」, 17항 참조.

43) 한국 교구들에서는 제대와 『복음집』에 입을 맞추는 대신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한다(총지침, 273항).

44) 「총지침」, 175항.

14. 강론⁴⁵⁾

1)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찌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크게 권장된다.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우들이 참여하는 모든 미사에서는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생략할 수 없다. 다른 날에도, 특히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성당에 모이는 축일이나 특별한 기회에는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⁶⁾

2) 평신도의 말씀 선포는 강론이 아니라 설교이며, 평신도의 설교가 필요할 경우 주례사제가 짧게라도 강론을 한 후에 맡겨야 한다.⁴⁷⁾

3) 강론은 그날 봉독한 성경의 내용이나 그날 미사의 통상문 또는 그날 미사의 고유 전례문에 대하여 적절히 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강론은 독서대나 주례석에서 한다. 강론 다음에는 묵상을 위하여 알맞게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15. 신앙 고백(신경)⁴⁸⁾

주일과 대축일에는 강론을 한 다음에 신경을 바친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대신에,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이른바 사도 신경 곧 로마 교회의 세례 신경을 바칠 수 있다.

16. 보편 지향 기도

주례 사제는 보편 지향 기도를 주례석에서 이끈다. 주례 사제는 손을 모으고 짧은 권고로 신자들을 보편 지향 기도예에 초대한다. 보편 지향 기도는 독서대나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부제나 선창자, 독서자 또는 다른 평신도가 바친다. 그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맺음 기도로 이 청원을 마친다.⁴⁹⁾

45) 「총지침」, 29, 66항.

46) 「총지침」, 66항 참조: 트리엔트 공의회, 제22회기, 미사성제에 대한 교의, 제8장:「신경 편람」(DS), 1749.

47)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 대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강론이 아니다. 평신도의 설교는 사제의 짧은 강론 후나 영성체 기도 후에 허용될 수 있다: 교회법 제766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조 2항;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2002.6.25) 참조.

48) 「총지침」, 67-68항; 「미사 통상문」, 19항 참조.

49) 「총지침」, 69-71항, 138항 참조: 보편 지향 기도문을 마련할 때에는 「총지침」 70항의 순서를 따라 간단명료하게 준비한다.

다. 성찬 전례

17. 봉헌 노래

회중이 봉헌 행렬을 하는 동안 봉헌 노래를 부른다.⁵⁰⁾ 이 노래는 적어도 예물(빵과 포도주)을 제대 위에 차려 놓을 때까지 계속한다. 예물 행렬이 없더라도 사제가 예물을 준비하는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성가를 부르지 않으면 신자들은 사제의 예물 준비 기도에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라고 환호한다.

18. 감사 기도 (*Pex Eucharistica*)⁵¹⁾

「미사 통상문」에 있는 감사 기도를 고를 때는 아래 규범을 따른다.

- 1) 감사 기도 제1양식, 곧 로마 전문(*Canon Romanus*)은 언제나 쓸 수 있지만 특기 고유 성인 기도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Communicantes*)와 고유 ‘Hanc igitur’ (예컨대, “주님, 물과 성령으로 ... 저희 봉사자들과”)가 제시되어 있는 미사뿐만 아니라 이 감사 기도에 이름이 나오는 사도들과 성인들의 축일에 바치면 더욱 좋다. 또한 사목적 이유로 감사 기도 제3양식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주일에도 제1양식을 쓰는 것이 좋다.
- 2) 감사 기도 제2양식은 그 특성으로 보아, 주간 평일과 특별한 환경에서 쓰면 좋다. 이 감사 기도에는 고유 감사송이 붙어 있지만 다른 감사송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더구나 공통 감사송과 같이 구원의 신비를 종합하여 표현하는 감사송과 같이 쓸 수 있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거행할 때에는 지정된 곳, 곧 ‘부활의 희망 속에’ (*Memento*) 전에 죽은 이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바칠 수 있다.
- 3) 감사 기도 제3양식은 어떠한 감사송과도 함께 쓸 수 있으며, 주일과 축일에 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 감사 기도를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 쓸 때는 지정된 곳, 곧 ‘인자하신 아버지, 사망에 흠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다음에 죽은 이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바칠 수 있다.

50) 「총지침」, 37항 ㄴ 참조.

51) 「총지침」, 365항.

- 4) 감사 기도 제4양식은 구원의 역사 전체를 요약하여 제시하며, 다른 감사송과 바꿀 수 없는 고유 감사송을 가지고 있다. 고유 감사송이 없는 미사와 연중 주일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감사 기도에는 그 구조 때문에 죽은 이를 위한 특별한 기도문은 넣을 수 없다.

19. 감사송과 '거룩하시도다'

- 1) 감사송을 시작할 때 사제는 팔을 벌리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한 다음, 손을 올리며 “마음을 드높이.” 하고 말한다. 그리고 팔을 벌리고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 뒤 감사송을 계속한다.⁵²⁾
- 2) 사제는 감사송 끝에 손을 모으고, 교우들과 함께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거나 분명한 목소리로 낭송하며 감사송을 마친다.

20. 성찬 제정과 축성문 및 성체 거양

- 1) 사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교우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각각 들어 올린다. 이때 향을 사용한다면, 향로 봉사자가 향로를 들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 향로 봉사자는 사제가 성체와 성혈이 들어 있는 성작을 들어 보일 때 각각 향로를 두어 번씩 흔들어 세 번 분향한다. 부제가 여럿이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분향할 수 있다.⁵³⁾
- 2) 빵과 포도주 축성 및 마침 영광송 이외에는 성합과 성반 및 성작에 성작덮개로 덮어둘 수 있다.

21. 전구 중 주교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⁵⁴⁾

교황과 주교를 비롯하여 모든 성직자를 위하여 간구할 때 주교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두 명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에는 “저희 주교 (아무)와 (아무)”와 같이, 언제나 교구장 주교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다른 주교의 이름을 부른다.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의 이름을 기억할 때에는 “저희 주교 (아무)와 부교구장 주교 (아무)” 또는 “저희 주교 (아무)와 보좌 주교 (아무)”라고 할 수 있다.

52) 「미사 통상문」, 31항.

53) 「총지침」, 179항 참조.

54) 「총지침」, 149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년)에 따른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 2004, 〈전구〉 참조; 경신성성 교령, 감사 기도 안에서 주교의 이름을 부를 때, 1972.10.9. 참조

보좌 주교가 여럿이면 교구장 주교의 이름 다음에 모두 함께 기억하여, “저희 주교 (아무)와 보좌 주교들과”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더 많은 협력 주교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면 “저희 주교 (아무)와 협력 주교들과”라고 한다.

- 2) 어떤 사제가 성지 순례의 경우처럼 자기 교구 밖에서 자기 교구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할 때에는 “저희 주교(아무)와 (그 지역의) 교구 주교 (아무)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라고 한다.

22. 감사 기도의 마침 영광송

- 1) 감사 기도의 마침 영광송을 바칠 때 사제가 축성된 빵이 담긴 성반을 들고 있는 동안 부제는 옆에 서서 교우들이 “아멘” 하고 환호할 때까지 성작을 들고 있다.⁵⁵⁾
- 2) 교우들은 가능한 한 큰 환호가 되도록 “아멘”을 노래로 하는 것이 좋다.

라. 영성체 예식

23. 주님의 기도

- 1) 주님의 기도에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청한다. 이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 성찬의 빵을 뜻한다. 또 이 기도는 죄를 깨끗이 씻어 달라고 간청한다. 그리하여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받게 한다. 사제가 먼저 기도하자고 초대하고 모든 신자가 사제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 이어서 사제 혼자 후속 기도를 바치고 신자들은 영광의 환호로 끝맺는다. 후속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마지막 청원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악의 힘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한다.⁵⁶⁾
- 2) 사제가 손을 모으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권고하면 회중은 사제의 선창 없이 곧바로 주님의 기도를 시작한다. 사제는 팔을 벌리고 회중과 함께 기도한다.⁵⁷⁾

55) 「총지침」, 180항 참조.

56) 「총지침」, 81항.

57) 「총지침」, 152항. 전례적으로 주님의 기도 때에 손을 잡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다. 최근에 정서적인 문제나 위생적인 문제로 손을 잡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일선 사목자들이 친교를 이유로 미사 때마다 손을 잡기를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2015년 춘계 주교회의 결정).

24. 평화 예식 58)

평화 예식에서 교회는 자신과 온 인류 가족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교회의 친교와 서로의 사랑을 드러낸다.

사제는 봉사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때 거행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사제는 언제나 제단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제는 신자 몇 사람과도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다. 신자들은 모두 가까이 있는 이들과 한 차분하게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⁵⁹⁾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방법은 주교회의가 민족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정한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평화의 인사로 가벼운 절을 한다.

25. 빵 나눔과 하느님의 어린양⁶⁰⁾

- 1) 빵을 쪼개는 예식은 불필요하게 길게 끌어서는 안 되며 어울리지 않게 과장해서도 안 된다. 이 예식은 사제와 부제만 할 수 있다. 회중은 사제가 빵을 쪼개는 동안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하는데, 빵을 쪼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하느님의 어린양을 반복하여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언제나 “평화를 주소서.”라는 말로 끝맺는다.
- 2) 사제는 축성한 빵을 쪼개어 작은 조각을 성혈이 담겨 있는 성작에 넣는다. 이 예식은 구원의 업적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가 하나 됨을 뜻한다.
- 3) 사제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고 할 때 성반 또는 성작 위에 성체를 조금 높이 받쳐 들고 교우들에게 보이며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대한다.⁶¹⁾

26. 영성체

- 1) 사제가 먼저 영성체를 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준다. 부제는 사제에게 성체와 성혈을 받아 영성체를 하고 나서 사제를 도와 신자들에게 경건하게 성체를 나누어 준다.⁶²⁾

58) 「총지침」, 82. 154항 참조.

59) “교황청 경신성사성 회람 「미사 중 평화의 은사를 나타내는 예식적 표현」의 지침에 따라, 대축일 미사, 성사 미사, 장례 미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축하, 기원, 또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만, 교중 미사를 제외한 어린이 미사나 청년 미사, 소단위 피정 미사에서는 좀 더 친밀감을 드러내는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도 있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신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편함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2-3분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한다.” : 주교회의의 2015년 춘계 정기총회.

60) 「총지침」, 83항.

61) 「총지침」, 84항.

62) 「총지침」, 182항.

- 2) 성체를 나누어 주는 사제나 부제는 장백의를 입거나 수단 위에 증백의를 입고, 영대를 댄다.
- 3) 신자들도 사제처럼 그 미사에서 축성한 성체로 주님의 몸을 모신다. 많은 성당에서 흔히 보듯이 미리 성체를 축성하여 감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늘 감실의 성체로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자들이 성찬례와 영성체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⁶³⁾
- 4) 우리나라에서는 주교회의가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지만 직접 입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⁶⁴⁾
- 5) 신자들은 사제에게서 성체(와 성혈)를 받아 모신다. 신자들이 직접 성체를 집어 모시는 것은 안 되며, 성혈도 거룩한 잔을 직접 들고 모시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신자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여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것은 더욱 안 된다.⁶⁵⁾
- 6) 신자들이 행렬을 지어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에는 앞 사람이 사제에게서 성체를 받을 때 깊은 절로 공경의 예를 드린 다음, 사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체를 받아 모신다.
- 7)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영성체의 대안으로 사탕이나 과자류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첫영성체 교리는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경외심을 가지고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8) 비정규 성체 분배자(수도자와 평신도)의 경우 성체 분배를 위해 성함을 직접 제대에서 가져가지 말고 주례 사제에게서 받아야 하며, 분배를 끝낸 후에도 주례 사제에게 성함을 인도한다.

63) 「총지침」, 85항.

64)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8조; 『미사 밖에서 하는 영성체와 성체 신비 공경 예식』, 21항 참조.

65) 「총지침」, 160항

27. 양형 영성체

- 1) 영성체는 성체와 성혈 양형으로 할 때에 표지로서 더 충만한 형태를 지닌다.⁶⁶⁾ 양형 영성체로 성찬 잔치의 표지가 한층 더 완전하게 드러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주님의 피로 맺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이 표현되며, 성찬 잔치와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질 종말 잔치의 관계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⁶⁷⁾ 이런 이유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⁶⁸⁾에 신자들이 양형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할 수 있다.
- 2) 거룩한 사목자들은 이러한 예식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하는 방식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트리엔트 공의회와 가르침에 따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이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한 가지 형상만의 영성체로도 그리스도를 참된 성사로 온전하게 모두 다 모시는 것이므로, 그 효과와 관련하여 오직 한 가지 형상만 모시는 이들도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⁶⁹⁾

66) 「총지침」, 14, 86항 참조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하는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에 때때로 더욱 분명한 성사적 표지인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양형 영성체를 위한 양형영성체 성향(일체형 성작 성향) 사용을 권장한다. 참고로 일반적인 양형영성체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총지침」, 281-287항 참조).

- (1) 해당 예식서에 제시된 경우 외에도 아래와 같이 양형 영성체가 허락된다.
 - 가)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거나 공동 집전할 수 없는 사제들.
 - 나) 미사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제와 다른 사람들.
 - 다) 수도원 미사나 이른바 공동체 미사를 드리는 공동체 회원들, 신학생들, 영성 수련(피정) 또는 영성 모임이나 사목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
- (2) 이때 신자들은 성체 교리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성사가 모독될 어떤 위험도 없어야 한다. 또한 영성체하는 이들의 수효가 많거나 다른 까닭으로 예식 진행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를 위하여 양형 영성체 규범을 정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자로서 사제가 좋다고 여길 경우 양형 영성체를 분배하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다.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추인을 받아 양형 영성체를 신자들에게 확대하는 권한과 분배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 (4) 빵의 형상만으로 영성체하기를 바라는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해 준다.
- (5) 양형 영성체 분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 가)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마시게 할 경우에는 충분히 큰 성작을 하나 준비하거나 보통 크기 성작을 여러 개 준비한다. 다만 미리 주의를 기울여 거행 끝에 모셔야 할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한다.
 - 나) 성혈에 적셔서 분배할 경우에는 축성된 빵이 너무 얇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 보통 때보다 좀 더 두꺼운 빵을 사용하여, 성혈에 적신 다음에도 쉽게 분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67) 「총지침」, 281항.

68) 예를 들면, 혼인, 축일, 생일(회갑·칠순·팔순 등), 부부의 기념일 등에 준한 날들을 말한다.

69) 「총지침」, 282항: 더 나아가 성사를 돌보는 일에서 그 본질을 지키는 가운데, 상황과 시대와 지역의 다양성에 따라 성사 공경이나 이를 받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회가 이를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신자들이 성찬의 표지가 더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거룩한 예식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8. 영성체 노래

- 1)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영성체 노래를 시작한다. 영성체 노래는 『로마 미사 성가집』이나 『단순 미사 성가집』에 실린 영성체송을 시편과 함께 부를 수도 있고, 영성체송만 부를 수도 있다. 또는 주교회의가 승인한 다른 알맞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노래는 성가대만 부르든지 성가대나 선창자가 교우들과 함께 부른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영성체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할 수 있다.⁷⁰⁾
- 2) 한국 교구들에서는, 한국 주교회의가 승인한 것으로서, 거룩한 예식이나 전례 시기나 그날의 특성에 맞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⁷¹⁾
- 3) 한 목소리로 부르는 영성체 노래는 영성체하는 이들의 영적인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며,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 특성을 더욱더 밝혀 준다. 이 노래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동안 계속하여 부른다. 영성체 후 찬가가 있다면 영성체 노래는 적절한 때에 마친다.⁷²⁾

29. 영성체 후 찬가 및 묵상낭송 문제

- 1) 성체 분배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사제와 신자들은 잠깐 속으로 기도를 바친다.⁷³⁾
- 2) 또한 바람직하다면 회중 전체가 시편이나 다른 찬양 노래나 찬미가를 부를 수 있다.⁷⁴⁾
- 3) 성가대의 영성체 후 찬가가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면 성체 행렬 후반부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70) 「총지침」, 87항. 사제 자신이 성체를 모신 다음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기 전에 낭송할 수도 있다.

71) 「총지침」, 87항 참조.

72) 「총지침」, 86항.

73) 「총지침」, 88항. 거룩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으로서 제 때에 지켜져야 한다. (...) 영성체 후에 하는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기도를 바치도록 이끌어 준다(「총지침」, 45항).

74) 「총지침」, 88항, 164항.

30. 성작과 성합 닦음

씻을 그릇이 특히 많은 때에는 제대나 주수상 위에 성체포를 깔고 잘 덮어 두었다가 미사가 끝난 뒤 교우들을 파견한 다음 곧바로 씻을 수 있다.⁷⁵⁾

31. 영성체 후 기도

영성체 뒤에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 사제는 제대나 주례석에 서서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다.⁷⁶⁾

마. 마침 예식

32. 공지 사항

공지 사항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 다음에 알린다.⁷⁷⁾

33. 퇴장

사제는 입당할 때와 같이 제대에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한다. 그 다음에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 앞에서 깊은 절을 하고 물러간다.⁷⁸⁾

34. 마침 예식

미사에 다른 전례 예식이 이어지면 마침 예식, 곧 인사와 강복과 파견은 생략한다.⁷⁹⁾

35. 파견 노래

사제와 교우들은 미사를 마치며 감사와 파견의 의미를 지닌 노래를 부른다. 사제도 교우들과 함께 얼마 동안 노래를 부르고 제단을 떠나는 것이 좋다.

75) 「총지침」, 163항 참조.

76) 「총지침」, 165항.

77) 「총지침」, 90항 참조.

78) 「총지침」, 169항 참조. 한국 교구들에서는 제대와 「복음집」에 입을 맞추는 대신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한다(총지침 273항).

79) 「총지침」, 170항.

Ⅲ. 공동 집전 지침

1. 공동 집전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여러 사제가 한뜻 한목소리로 하나의 성사,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도 공동 집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사제직의 단일성”(전례헌장 57항)을 강조하였다. 미사는 여러 사제가 공동으로 거행하더라도 하나의 십자가 제사의 재현이고, 단일한 사제직의 수행이며 하느님의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에 참여하는 사제들은 여러 사제와 함께 미사를 집전한다 하더라도 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의 단일한 관계 안에서 단일한 사제직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사제는 평신도들과는 달리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며 하나의 온전한 미사를 거행한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 미사에서 이미 미사가 시작되었으면 아무도 공동 집전에 들어갈 수 없고 허용되지도 않는다.⁸⁰⁾
3. 각 사제는 혼자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지만 공동 집전이 있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같은 시간에는 할 수 없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과 파스카 성야 미사는 사제 혼자 봉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⁸¹⁾
4. 사제 신분이 확인되면 손님 사제를 성찬례 공동 집전에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⁸²⁾

80) 「총지침」, 206항.

81) 「총지침」, 199항; 전례헌장 57항; 교회법 902조 참조: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주례하거나 공동 집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총지침」, 204항 참조.

82) 「총지침」, 200항.

5. 공동 집전 사제들의 자리

- 1) 공동 집전자들은 교우들의 자리와는 구분되는 곳(제단 영역)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사제들은 회중 가운데에 섞여 앉지 말아야 하며, 또한 공동 집전자들과 제대 사이에는 아무도 앉지 말아야 한다. 제단이 모든 공동 집전자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지 못하면, 나머지 공동 집전자들은 다른 적절한 자리에 앉는다. 그러나 그 자리는 다른 공동 집전자들이 앉아 있는 제단과 물리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2) 공동 집전자들의 위치는 한 명의 주교 또는 한 명의 신부가 미사 전체를 주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동 집전자들이 주례자와 다른 전례 봉사자들의 위치를 차지하거나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동 집전자들은 회중의 시야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6. 복장

- 1) 공동 집전자들도 제의를 갖추어 입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동 집전자들의 수는 많고 제의가 부족할 때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례자를 뺀 공동 집전자들은 장백의 위에 영대를 메고 제의는 입지 않아도 된다.⁸³⁾
- 3) 사제는 평상복, 곧 통상적인 성직자 복장으로 미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수단 위에 영대만 메고 미사를 드려서도 안 된다. 수도 사제들도 수도복 위에 영대만을 메고 미사를 드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⁸⁴⁾
- 4) 공동 집전자들이 모두 제의를 입는다면 그 제의의 장식은 주례 사제의 제의 장식보다 단순하여야 한다. 크기와 모양 그리고 장식에서 공동 집전 사제들이 입고 있는 다양한 제의가 사제단의 일치를 해치거나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주례 사제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주례 사제만 그날의 전례색을 따라 제의를 갖추어 입고, 공동 집전자들은 흰색을 입는다. 이때 부제들은 흰색이나 그날 전례일의 색깔로 입을 수 있다.

83) 「총지침」, 209항 참조.

84) 경신성성, *Liturgicae Instaurationes*, 1970.9.5., 8c 참조.

[공동 집전 예식]

1. 복음 선포

- 1) 분향이 있을 경우 알렐루야가 시작되면 교구장 주교나 혹은 그에게 위임받은 주교를 제외하고 모두 일어서며, 주교는 향 축복과 복음 선포자(부제나 사제) 축복을 한 후 일어난다.⁸⁵⁾
- 2) 주교는 아무 말 없이 향을 넣은 다음, 복음을 선포할 부제 또는 부제가 없으면 복음을 선포할 공동 집전자에게 축복한다. 그러나 신부가 주례하는 공동 집전 미사에 부제가 없을 경우 복음을 선포할 공동 집전자는 주례자에게 축복을 청하지도 받지도 않는다.⁸⁶⁾ 이런 경우에는 제대를 향하여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미사 통상문에 나와 있는 대로 조용히 기도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2. 제대에서⁸⁷⁾

- 1) 주례자가 예물 기도를 바친 다음, 공동 집전자들은 제대로 나아가 그 둘레에 선다. 그러나 예식을 진행하는 데나 신자들이 거룩한 행위를 잘 보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부제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제대에 다가가야 할 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 2) 부제는 제대 가까이에서 필요할 때에 성작과 미사 경본을 시중드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부제는 되도록 제대에서 조금 뒤쪽으로 물러나, 주례자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 집전 사제들 뒤에 선다.

85) 「총지침」, 212항.

86) 「총지침」, 212항 참조.

87) 「총지침」, 215항.

3. 감사기도를 바치는 방식

- 1) 공동 집전자들이 다 함께 바치는 부분, 특히 모두 낭송하도록 되어 있는 축성의 말씀은 공동 집전자들이 목소리를 낮추어 주례자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리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교우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 2) 모든 공동 집전자가 함께 바치는 부분으로서 미사 경본에 악보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노래로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⁸⁾

4. 축성⁸⁹⁾

주례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성찬 축성의 말씀을 할 때에 공동 집전자들은 빵과 성작을 향해 오른손을 펼친다. 손바닥은 예물 위로 향하게 비스듬히 기울인다.⁹⁰⁾

5. 기념과 봉헌, 일치 기원 성령 청원⁹¹⁾

공동 집전자들은 성체 성혈 축성 후 기념과 봉헌 그리고 일치 기원 성령 청원 기도 때에 주례자와 함께 ‘기도하는 동작’으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6. 전구

- 1) 전구는 공동 집전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바치는 것이 좋다. 각자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바친다.⁹²⁾
- 2) 전구를 바칠 공동 집전자는 마이크 사용을 이유로 주례자를 가려서는 안 된다. 가급적 마이크를 따로 준비하도록 한다.⁹³⁾
- 3) 전구를 바칠 공동 집전자를 위하여 감사 기도가 들어 있는 『미사 통상문』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⁴⁾

88) 「총지침」, 218항.

89) 「총지침」, 222, 227, 230, 233항 참조.

90) 「주교 예절서」, 106항과 각주 참조.

91) 「총지침」, 222항 ㄹ), 227항 ㄹ), 230항 ㄹ), 233항 ㄹ) 참조

92) 「총지침」, 223, 228, 231, 234항 참조.

9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에 따른 간주린 미사 전례 지침」, 2004, 〈공동집전 사제들의 자리〉 참조 : 공동집전자들의 위치는 한 분의 주교 또는 한 분의 사제가 미사 전례를 주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동집전자들이 주례자와 다른 전례 봉사자들의 위치를 차지하거나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구를 바칠 공동 집전자는 마이크를 옆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따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4) 「주교 예절서」, 125항 참조.

7. 감사기도의 마침 영광송

- 1) 부제가 있으면 부제가, 부제가 없으면 공동 집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작을 들어 올릴 수 있다.⁹⁵⁾
- 2) 감사 기도 of the 마침 영광송은 주례자 혼자 바치는 것이 원칙이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면 다른 공동 집전자들과 함께 바친다. 그러나 신자들과는 함께 바치지 않는다.⁹⁶⁾
- 3) 마침 영광송은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다.

8. 주님의 기도

- 1) 그다음에 주례자는 손을 모으고 주님의 기도 전에 권고를 한다. 이어서 주례자와 나머지 공동 집전자들은 다 함께 팔을 벌리고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⁹⁷⁾
- 2) 주님의 기도와 후속 기도(*Embolismus*)는 연결된 기도이며, “아멘”을 하지 않고 교우들이 바치는 영광의 환호로 끝맺는다.
- 3)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는 주례자 혼자 팔을 벌리고 바친다.⁹⁸⁾

9. 영성체⁹⁹⁾

- 1) 공동 집전자들은 거행되고 있는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⁰⁾

95) 「총지침」, 180항 참조.

96) 「총지침」, 236항.

97) 「총지침」, 237항.

98) 「총지침」, 238항.

99) 「총지침」, 242-249항 참조.

100) 예의 규정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24일의 신앙교리성 회람(Prot. 89/78-17498), B3 참조; 「총지침」, 249항: 사제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바로 그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로 주님의 몸을 모시고, 미리 허용된 경우에는(283항 참조), 성작에서 성혈을 모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 2) 성혈은 주례자가 모신 다음에 한 사람씩 제대로 나아가 모신다. 제자리에서 부제나 다른 사제가 모셔 온 성작에서 성혈을 모시고 옆 사제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성체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 3) 공동 집전자들은 성체를 성혈에 적셔 모시는 방식으로 영성체를 할 수도 있다.
- 4) 부제나 공동 집전자들 중에서 성체를 분배할 경우 먼저 영성체를 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준다.

Ⅳ. 기타 유의 사항

- 1) 해설자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연스런 진행을 방해하는 해설(예: 독서나 복음 전 해설)을 하지 않도록 한다.
- 2) 회중의 더욱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해 오르간과 성가대석은 회중석에서 너무 동떨어진 곳에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성가대석을 성당 2층에 마련하는 것보다 제대 가까이 두어 회중의 성가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를 지휘하여 모두 한목소리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¹⁰¹⁾

101) 「총지침, 312-313항 참조 : 성가대 자리는 성당 구조를 고려하여 성가대도 모임을 이룬 신자 공동체의 한 부분이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또 성가대원들이 맡은 임무를 쉽게 수행하고 성가대원 각자가 편리하게 성체를 받아 모시어 미사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오르간과 합법적으로 승인된 다른 악기는 적당한 자리에 놓아 성가대와 교우들이 노래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악기만 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오르간은 전례에 쓰기 전에 《로마 예식서》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축복한다.

대림 시기에 오르간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이 시기의 특성에 맞게 절제하여, 주님 성탄 축제의 총명한 기쁨이 너무 일찍 드러나지 않게 한다. 사순 시기에는 오르간과 다른 악기는 노래 반주에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즐거워하여라' 주일사순 제4주일, 대축일, 축일에는 예외다.

3) 교우들이 개인적으로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도록 알맞은 경당에 성체를 모실 수 있다. 그러나 따로 이러한 경당을 마련할 공간이 없는 본당에서는 성당 안에 품위 있는 장소에 감실을 마련한다.¹⁰²⁾

4) 위령 미사, 곧 죽은 이를 위한 미사¹⁰³⁾에는 ①장례 미사(위령 1), ②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첫 기일 미사(위령 2), ③ 평일 위령 미사(위령 3)가 있다. 그 중에서 장례 미사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

장례 미사는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다.

〈위령 2 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다.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미사, 곧 평일 위령 미사(위령 3 미사)¹⁰⁴⁾는 실제로 어떤 이에게 적용되는 미사¹⁰⁵⁾라면 선택 기념일이나 연중 시기 평일에는 드릴 수 있고,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의무 기념일이나 축일, 연중 시기의 주일에는 드릴 수 없다.

102) 「총지침」, 314-317항 참조: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는 각 성당의 구조와 합당한 지역 풍습을 고려하여 성당의 한 부분에 감실을 만들어 모셔 둔다. 감실은 참으로 고상하고, 잘 드러나고, 잘 보이면서도, 아름답게 꾸민 곳에, 또한 기도하기에 알맞은 곳에 마련해야 한다. 감실은 보통 하나이고 불박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불투명 재질로 만든다. 그리고 성체를 모독할 위험이 결코 없도록 담아 두어야 한다. 그 밖에도 전례에 쓰기 전에 《로마 예식서》에 제시된 예식에 따라 축복한다.

전통 관습에 따라 감실 옆에는 기름이나 초를 사용하여 언제나 특별한 등불을 켜 놓아 그리스도의 현존을 나타내고 경의를 표시한다.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라 감실은 아래와 같이 만드는 것이 좋다

ㄱ) 예식을 거행하는 제대가 아닌 가장 적절한 곳에 알맞은 형태로, 제단 안에 설치한다. 더 이상 예식 거행에 쓰지 않는 옛 제대 위에 설치할 수도 있다(303항 참조).

ㄴ) 성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눈에 잘 띄며 개인적으로 조배하고 기도하기에 알맞은 다른 경당에도 설치할 수 있다.

103) 참조: 「총지침」, 379-385항; 전례력,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전례위원회, 14. 18-20p.

※ 위령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표는 [부록3] 참조

104) 이는 조상이나 지인의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드리는 미사이며, 예물과 함께 드리는 미사(흔히 '연미사'라 칭함)와 다름

105) 첫 기일이 아닌 다른 기일 미사나 특정 교인을 기억하며 드리는 특별 위령 미사

위령 미사가 아닌 경우, 조상이나 지인의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예물과 함께 드리는 미사(통칭 ‘연미사’)의 경우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 가신 교우 ()를...” 하는 대목을 기도하지 않으며, 다른 곳에서도 죽은 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령 미사에서 제의 색에 대하여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소박한 흰색 제의를 사용하기로 정하였다(1970년 6월 30일-7월 2일 주교회의 임시총회 결정). 제대에는 꽃을 놓지 말아야 한다.

고별식은 시신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한국 교구들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골만 있거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도 고별식을 거행할 수 있다).

2020년 5월 31일

[부록 1]

새 「로마 미사 경본」에 대한 간략한 소개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작성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 이후 현재까지 모두 네 차례 반포되었는데,

1970년에 표준판(editio typica) ⇨ 교황 바오로 6세

1975년에 제2표준판(editio typica altera)

2002년에 제3표준판(editio typica tertia)

2008년의 제3표준 수정판(editio typica tertia emendata 2008)

– 현행 미사 경본

이 4개의 판본은 1970년에 교황 바오로 6세의 권위로 반포된 표준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모두 ‘바오로 6세 성사집’이라고 통칭한다.

〈우리말 로마 미사 경본〉

표준판을 번역하여 1975년에 출판

1996년에 우리말 「미사 통상문」이 발행

2008년의 제3표준 수정판을 번역

2017년 8월 15일에 새로이 출판

2017년 12월 3일(대림 제1주일)부터 시행될 것임

⇒ 1975년 이후로 42년 만에 개정된 것임

새로 나온 우리말 『로마 미사 경본』에 대하여 알려면 번역문의 변화를 살피기 이전에, 라틴어 제2표준판과 제3표준판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① 먼저 로마 미사 경본 제2표준판에서 제3표준판으로 넘어가면서 생긴 변화들을 소개하고, ② 그 다음에 새 우리말 『로마 미사 경본』의 주요한 사항들을 제시하며, ③ 새 로마 미사 경본으로 인해 전례력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따로 소

개하고, ④ 끝으로 로마 미사 경본과 전례력에 나타나는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겠다.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의 변화〉

- 1)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기존에 있던 4개의 감사 기도 외에 화해 감사 기도 2개와 기원 미사 감사 기도 4개가 추가되어 모두 10개의 감사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 2)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양일간에 주님 수난 예식에 참여한 이들이 하는 영성체와 노자 성체 외의 모든 성사를 금지하여 왔는데, 치유 성사인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만큼은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을 막론하고 언제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예규가 변경되었다.
- 3)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로 ‘사제 혼자서 드리는 미사’를 첫째 자리에 놓았던 것에 반하여, 제3표준판은 전례의 교회론적 차원을 중시하여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성찬례의 전형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사제 혼자서 드리는 미사는 부득이하고 중대한 이유가 없이는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4) 본연의 신경이라 할 수 있는 사도 신경의 위상을 복원하여 특히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사도 신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미사 통상문(이하, 통상문) 19항].
- 5) 그레고리오 성가의 위상 또한 복원하여 악보 없는 본문 앞에 악보 있는 본문을 제시함으로써 노래로 바치는 미사가 더욱 합당하고 장엄한 것임을 천명하였다(미사 총지침 41항).
- 6) 전례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탁하는 거룩한 침묵의 바탕 위에서 거행되어야 함도 강조하였다(미사 총지침 45, 56항).
- 7) 시작 예식의 인사에는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모든 양식에서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응답하도록 통일하였으며(통상문 2항, 부록에 제시되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라는 응답은 전례 사목적 이유로 삭제하였다. 그리고 “영성체 노래는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에 시작한다.”라고 그 시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 사제가 성체를 모실 그 순간에 해설자의 성가번호 알리는 멘트와 그에 따라 신자들이 성가책을 펼치는 소리는 소음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제의 영성체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말 번역문의 새로운 점〉

이 변화의 일부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따라 마련하여 사도좌의 주인을 받아 삼입한 ‘한국 교구 적용 지침’ 이고, 다른 부분은 라틴어 본문에 더욱 일치하도록 이전과 달리 번역한 것인데 대부분 경신성사성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장례 예식에서 고별식은 반드시 시신이 있을 경우에만 거행하였다. 그러나 한국 교구들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골만 있거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도 고별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미사 총지침 384항 적용). 이 경우 기도문은 알맞게 바꾸어 적용해야 할 것이며, 유골도 없는 경우에는 성수 뿌림과 분향은 하지 않는다.

전례 거행에 가장 어울리는 악기는 오르간이다. 그러나 한국 교구들에서는 관악기와 현악기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악기는 특별한 경우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용해야 한다(미사 총지침 393항 적용). 악기의 사용은 참으로 거룩한 목적에 알맞아야 한다.

전례 대화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에 대하여 교우들의 응답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또한 부제의 영과 함께.”로 수정되었다. 여기서 ‘영’은 개인의 영혼이 아니라 성품성사 때 받은 ‘성령’을 가리킨다.

감사 기도 중 성찬 제정문의 축성 말씀인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가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로 수정되었다. 이렇게 수정한 것은 전례 전통 안에 이어져 온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능한 한 모두 담아내기 위함이다.

감사기도 제2, 3, 4 양식의 ‘성인들을 기억하는 기도’에서 성모님을 언급하는 부분 다음에, 제1양식에 나오는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를 삼입하였다. 성가정은 교회의 모상이며,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께서 성가정의 어머니를 교회의 어머니로 맺어 주셨듯이 그렇게 성가정의 보호자요 아버지인 성 요셉은 교회의 보호자요 아버지가 되었다.

라틴어 본문에 충실하게, 미사 통상문 128항에서 “장례 미사에서는 평화의 인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본문을 삭제하고 “경우에 따라”(pro opportunitate)라는 단서를 복원하였다.

또한 영성체 전 사제의 말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앞에 “보라!”를 넣고, 교우들의 응답은 “...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로 수정하였는데, 이 역시 라틴어 본문에 충실하고 성경에 일치시키기 위함이다(통상문 132항).

〈전례력의 변화〉

새 『로마 미사 경본』에 따른 ‘전례력’의 변화들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고유 ‘명절’에 드리는 미사를 대축일 미사가 아니라 기원 미사로 정리하였다. 음력 1월 1일에는 ‘설 명절 미사’라고 불리는 기원 미사를 거행한다. 이때 기원 미사 25 ‘새해’ 또는 기원 미사 25-1 ‘설, 음력 1월 1일’ 전례문을 사용한다. 설 명절이 사순 시기 주일이나 재의 수요일과 겹치면 보편 전례력에 따른 미사 전례문으로 미사를 거행한다. 추석에는 ‘한가위 명절 미사’라고 불리는 기원 미사를 거행한다. 이때 기원 미사 28 ‘수확’ 또는 기원 미사 28-1 ‘한가위, 음력 8월 15일’ 전례문을 사용한다. 한가위 명절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과 겹칠 경우는 대축일 미사를 드린다.

6월 25일에는 기원 미사 예식 규정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원 미사를 드린다. 이날 기원 미사 30 ‘정의와 평화’ 또는 기원 미사 30-1 ‘민족의 화해와 일치’ 전례문을 사용한다.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아 그 전 주일로 옮겨 지내는 곳에서는 한 대만 이 미사를 드린다.

경신성사성의 요청에 따라 전례일의 등급이 조정되었다.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대축일’과 12월 3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대축일’은 보편 전례력에 따라 등급을 기념일로 바꾸어 정리하였으며 ‘선교의 수호자’라는 호칭을 삭제하였다.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은, 보편 전례력에서 동일한 성인의 축일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다만 이날 신심 미사로는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라틴어 본문에 더욱 충실하게 축일의 명칭을 수정하였다. ‘예수 성탄 대축일’을 ‘주님 성탄 대축일로’로, ‘예수 부활 대축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로 수정하였다. 동정 마리아에 붙는 형용사인 ‘복되신’을 살려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등으로 명칭을 고쳤다. 3월 19일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에서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라는 호칭을 삭제하였다. 라틴어 본문의 최상급 표현을 살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등으로 수정하였다.

〈미사의 허용과 금지〉 ⇨ [부록 3] 참조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판 발행 연표와 주요 변경 사항

1. 『로마 미사 경본』 한국어판 발행 연표

한국 교회	연도	로마 경신성
	1962-65	
한국 천주교회, 한국어 미사 시작	1967	
표준판 공포 이후 한국어 번역 착수	1970.3.26.	「로마 미사 경본」 표준판(<i>typica</i>) 발행
	1975.3.27.	「로마 미사 경본」 제2표준판 발행
주교회의, <i>Missale Romanum</i> 한국어판을 『미사 경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1976년 부활 대축일부터 공식 사용	1975.4.18.	
주교회의, 신자용 『미사 경본』 출판 (1992년 신조판 발행)	1979	
주교회의, 제44차 세계성체대회(1989) 서울 개최를 앞두고 미사 전례문과 예식서 개정 결의	1987	
미사 통상문 개정 발행, 대림 제주일부터 공식 사용	1996	
	2002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판 발행
	2008	「로마 미사 경본」 제3표준 수정판
우리말 『로마 미사 경본』 교황청 승인	2017.2.21.	
주교회의, 우리말 『로마 미사 경본』 발행	2017.8.15.	

2. 한국어 미사 통상문 일부 수정

변경 사유	변경 예
라틴어 최상급 형용사 ‘지극히 거룩하신’ (<i>Sandissimus</i>) 삽입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상제 성혈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라틴어 본문의 수식어 명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동정 마리아에 대한 형용사 ‘복되신’ (<i>Beata</i>) 삽입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성탄, 부활 대축일 명칭을 라틴어 <i>Dominus</i> 에 맞게 수정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명칭 삭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선교의 수호자” 호칭 삭제, 대축일에서 기념일로 등급 변경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3. 경신성사성 의견에 따른 전례일 명칭과 등급 수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근거
또한 사제와 함께 (신자들의 응답)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i>Et cum spiritu tuo.</i>)	경신성사성 공문(<i>Prot. N. 467/05/L</i>) <i>spiritus</i> : 개인의 영혼이 아니라 사제가 성품성사 때 받은 ‘성령의 은사’를 뜻함
성찬 전례 감사 기도 제 2, 3, 4양식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뒤에,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i>et beati Ioseph, eiusdem Virginis Sponsi</i>) 삽입	경신성사성 2013. 5. 1. 교령으로 삽입된 문구
감사 기도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많은 이를 위하여” (<i>PRO multis</i>)	경신성사성 공문(<i>Prot. N. 467/05/L</i>) 성경 본문대로 옮김
감사 기도 ‘신앙의 보람’	“신앙의 표” (<i>signum fidei</i>)	미사 통상문 95항(구 통상문 97항)
영성체 전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보라(<i>Ece</i>)! 하느님의 어린양 ...”	경신성사성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결정 (라틴어 <i>Ece</i> 살람)
영성체 전 교우들의 응답 “제가 곧 나으리이다”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i>sanabitur anima mea</i>)	경신성사성 의견에 따라, 주교회의 결정 <i>anima</i> : 개인의 영혼을 뜻함

***한국 고유 전례력과 고유 거행(날짜순)**

전례일	비고
(음)1. 1 설	기원 미사, 사순 시기 주일이나 재의 수요일과 겹치면 사순 시기 그날의 미사 전례문
5. 29 복자 윤지총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선택 기념일
6. 2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기원 미사
9. 2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보편 전례력의 기념일을 한국에서 대축일로 지냄
(음)8. 15 한가위	기원 미사, 한국 순교자들 대축일과 겹치면 대축일 미사 전례문
12. 8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한국 고유 전례문** : 한국 교구들에서 드리는 신심 또는 기원 미사를 위해, 라틴 어판에 없지만 한국 주교회의가 마련하여 추인 받은 미사 전례문들을 수록하였다.
 기원 미사: 설, 한가위, 민족의 화해와 일치, 회갑이나 교회 신심 미사: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7월 5일)

***악보 수록** : 제3표준판은 그레고리오 성가 악보를, 이전의 판본에서처럼 뒤쪽에 위치하는 부록에 따로 실은 것이 아니라, 통상문과 고유기도문에 있는 원래 자리에 위치시켰다. 이로써 전례 음악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위상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었다(전례현장 116항, 총지침 41항). 이는 읽어서 바치는 소위 ‘낭송 미사’(missa lecta) 보다는 ‘노래로 바치는 미사’(missa cum cantu)가 더욱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라틴어판의 4선 악보 가락을 존중하되, 사제와 신자들이 우리말로 쉽게 노래할 수 있도록 5선 악보로 바꾸어 적절히 편곡했다. 음 높이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부록 3]

위령 미사의 허용, 금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작성

『로마 미사 경본』과 『전례력』에는 어떤 날 또는 어떤 시기에 무슨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또는 ‘금지된다.’는 표현이 종종 나온다. 어떤 날에 신심 미사, 위령 미사, 예식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또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예식과 미사를 거행하는 것 자체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미사에서 어떤 전례문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례 예식, 병자성사 예식과 혼인 예식을 미사 중에 거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우선 1969년에 반포된 『장례 예식』의 경우 지침 6항이 이와 관련된 규정인데, 이것은 5년 뒤인 1974년 9월 18일에 발표된 경신성사성 답서를 참조하여 해석해야 한다. 장례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장례 미사 전례문을 사용할 수 없고 그날의 전례문을 사용하여 미사를 드리며 그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때 규정에 따라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독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날 독서 대신 선포할 수 있다.

『장례 예식』보다 뒤에 반포된 『병자성사 예식』(1972년) 81항과 97항 그리고 『혼인 예식』(1991년) 지침 34항에는 위에 언급한 답서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병자성사 예식 미사와 혼인 예식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그날 전례문을 사용하여 미사를 드리고, 그 미사 중에 해당 예식을 거행한다. 이때 규정에 따라 각 예식과 관련된 독서를 선택하여 그날 독서 대신 선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처럼 미사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어느 날이라도 미사 중에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며, 납득할 만한 사목적 이유로 미사 없이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날 미사에 어느 전례문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며, 미사 중에 그 예식을 거행할 수 있음과 없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예식 거행의 가부 자체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그 예식을 거행하지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는데, 예를 들어 성당 봉헌 예식은 미사와 분리할 수 없으며 모든 전례문이 축성의 뜻을 드러내어야 하므로 “결코 빠트려서는 안 되는

신비를 거행하는 축일에는 성당 봉헌 예식을 거행하지 못한다.”라고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의 ‘성당 봉헌 예식’ 7항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력(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수록된 위령 미사 거행 및 금지 도표

○ : 허용, × : 금지

	위령1	위령2	위령3
1. 의무 대축일			
2.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	×	×
3.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			
4. 의무가 아닌 대축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	×
5.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화 수요일			
6. 부활 팔일 축제			
7. 성탄 시기 연중시기의 주일	○	×	
8. 축일			
9. 12월 17-24일 의 대림 시기 평일	○	○	×
10. 성탄 팔일 축제			
11. 사순 시기 평일			
12. 의무 기념일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	○	×
14. 1월 2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15. 부활 시기 평일			
16. 연중 시기 평일	○	○	○

※ 〈위령 1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위령 2, 3 미사〉도, 〈위령 2 미사〉가 금지되는 날에는 〈위령 3 미사〉도 금지된다.¹⁰⁶⁾

※ **의무 대축일** :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106) 〈위령 1미사〉는 장례미사를, 〈위령 2미사〉는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첫 기일 미사를, 〈위령 3미사〉는 평일 위령 미사를 각각 가리킨다. 「총지침, 379-385항; 전례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전례위원회, 14. 18-20p 참조.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 표 ¹⁰⁷⁾

〈Ⅰ 등급〉

1.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
2. 주님 성탄, 주님 공현, 주님 승천, 성령 강림.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목요일, 부활 팔일 축제.
3.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4. 고유 대축일.
 - 1) 지역, 도시, 국가의 주요 수호자 대축일
 - 2) 각 성당의 봉헌과 봉헌 주년 대축일
 - 3) 각 성당의 주보 대축일
 - 4) 수도회의 주보 대축일, 창설자 대축일, 주요 수호자 대축일.

〈Ⅱ 등급〉

5.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주님의 축일.
6. 성탄, 연중 시기의 주일.
7. 보편 전례력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8. 고유 축일.
 - 1)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
 - 2) 주교좌 성당 봉헌 주년 축일.

107) 『총지침』 59-60항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미사 전례력』, 4-8p 참조.

- 3) 지역, 관구, 국가, 더 넓은 지역의 주요 수호자 축일.
 - 4) 위 4항 이외에, 수도회와 수도회 관구의 후보, 창설자, 주요 수호자 축일.
 - 5) 각 성당의 고유한 다른 축일들.
 - 6)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들어 있는 다른 축일들.
9. 12월 17일-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제. 사순 시기 평일.

〈Ⅲ등급〉

- 10. 보편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 11. 고유 의무 기념일.
 - 1) 지역, 교구, 나라 또는 수도회 관구의 다른 수호자 기념일
 - 2)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들어 있는 다른 의무 기념일.
- 12. 선택 기념일. 이 기념일들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과 「시간 전례 총지침」에 제시된 특별한 방식으로, 위 9항에 제시된 날에도 지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우연히 사순 시기 평일에 오는 의무 기념일은 선택 기념일처럼 지낼 수 있다.
-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주님 공현 후 토요일까지 성탄 시기 평일.
부활 팔일 축제 후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전 토요일까지 부활 시기 평일, 연중 시기 평일.

